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신년호 | 2015년 1월 26일

발행인 국철희 회장직무대행
 편집인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우리 연합회 우버 처벌하는 입법 추진

불법 우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서울중앙지검 우버 창업자 입건·기소

신기루처럼 나타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택시업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우리 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운수 사업법을 위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퇴출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직은 대도시인 서울을 중심으로 영업행위를 시도하는 우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국회를 상대로 펼치고 있다.

국회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이노근 의원이 우버를 겨냥 자동차 대여의 사업자의 (렌트카) 유상운송행위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노근 의원은 우버앱을 통한 알선이나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 통신망 또는 정보 통신 서비스를 통해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자도 기존 자가용 영업자 등과 같이 규제하고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의회는 우버 신고 포상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서울시가 대응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우버 테크놀리지를 운수 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우버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넬 칼라니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렌트카 업체 MK 코리아 대표와 회사 법인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2009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우버는 전국 곳곳에서 영업정지 압력을 받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을 자세다.

"산 넘어 산이다. 우버는 위법성 논란

이 커지면서 거센 도전에 직면, 실패로 끝낼 수 있지만 새로운 콜택시 앱들이 우후죽순처럼 택시 시장 침투를 노린다.

"2015년은 콜택시 앱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스마트폰이 급증하면서 국내의 앱들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택시 호출 시장이 콜 택시에서 앱으로 넘어가는 대이동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승민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의 전망이다.

우버가 운전기사를 회원으로 모집, 렌트카나 자가용 승용차를 택시로 알선해 운수사업법 위반 시비에 말려들고 있는 반면, 택시호출 앱은 택시업계에 침투 택시기사를 회원으로 모집해 고객에게 택시를 공급하는 합법성을 가장하고 있다.

신문광고를 통해 택시기사를 모집하는 리모택시 양성우 대표는 "기존의 콜택시 앱들은 택시 서비스 불만 해소에 초점을 맞춰 중·고령층인 택시기사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 혜택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택시기사의 편의성과 수익성 필요성을 고려한 앱들이 변화하는 택시 호출시장을 선점할 것이다"고 말했다.

독자 시단

택시별곡

글 신성명
 (전북 30바 8318호)

오늘길 가는길
 길은 많아도 택시가 가는 길은
 가시발길
 이사람 저사람 만나보니
 별별사람 다 있구나
 세상사 인간사
 모두 택시 안에 있고
 하안등 파란등 노랑등
 갓 쓴 택시행렬
 밤은 깊어가는데
 저 꼬리는 언제나 사라질런가!
 구석 구석 수없이 헤매인
 내 발자욱을 뒤로하고
 그럭 저럭
 하루를 쫓아가려니
 호주머니 사정이 말이 아니고
 그나마 몇푼 쥐고 집에 가려니
 우리 사장님 뵈기가
 부끄럽구나

인터넷 <http://www.개인택시.org> 으로도 기사확인 가능합니다.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최고한도 4,000만원 + 연 5.9% + 수수료 0원



상품안내

-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차량담보가치를 활용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 한도 : 최소 300만원 ~ 최고 4,000만원
- 금리 : 최저 연 5.9% ~ 최고 19.9%(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12/24/36개월 중 선택 가능
- 근저당 비용 : 없음
- 취급·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연체 이자율 : 17.9 ~ 29%(대출금리별 차등 적용)

혜택

- 개인택시 기사님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한시적 적용으로 금리 변경 가능)
- 방문 없이 전화로 대출 가능(심사기준 완화)

대상고객 및 차종

- 운행 이력 1년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
- 출고 이후 7년 이내의 본인 소유 택시
- 기타 본인 소유 차량 담보 가능(승용, RV, 승합, 상용 등)
- 설정 및 압류 차량인 경우, 해지 후 대출가능

이용방법

- 현대캐피탈 고객센터 1588-5330 (상담 시 전국 개인택시 공제 조합원 여부를 상담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 대상고객, 차종,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 요망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40702-165545호(2014.07.03)

전북개인택시조합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초청 '특별간담회' 개최



박상익 이사장 '택시현안문제 4가지 건의'

전북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1일 조합 사옥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전남개인택시조합 여근하이사장과 전북조합 임원 및 대의원, 시군조합장등 도내 개인택시 지도자 70여명이 생업도 불사한채 대거 참석한 가운데 특별간담회(사진)를 성황리에 개최 했다.

이날 박상익 이사장은 ▲택시 차령제도 개선 ▲개인택시연료 부가세 면제 ▲택시 자동차세 현행유지 ▲불법 택시영업 처벌강화 등 택시 현안문제 4가지를 건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당과 정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택시운행은 운전자 능력과 체력, 면

음, 중소도시, 대도시 등 택시영업환경에 따라 차량 운행키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차령연수 의무 폐차(말소)로 국가 및 택시운전자의 경제적 낭비가 초래, 일정키로 이상 운행시는 현행 차령 만료시까지 사용하고 미만 차량은 일정키로 도래 연수까지 계속 사용하여 국가적 낭비를 막아야 된다고 하였으며, 개인택시연료 부가세 면제에 대해서는 이이재, 설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면제 예산을 택시감차보상 재원에 사용하여 된다고 했다.

박상익 이사장의 4가지 건의 사항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개인택시운전자가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날 국토교통부 권병윤 종합교통정책관이 동석하여 박상익 이사장이 건의한 사항은 정부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해결책을 찾아 보겠다고 했다.

공제조합과 국토교통부 간담회 개최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 대전지부 3층 강당에서 공제조합 16개 시·도조합 지부장회의를 겸한 국토교통부 공제 담당 부서간의 공제조합 최대현안 사항인 전담지부장제 도입 여부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 했다.

간담회에서 국토부 자동차보험 팀장(김성수)은 손보사보다 높은 민원발생과 급별보상금 수준을 언급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운수사업자가 공제사업을 직접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며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직원이 해당 지부를 책임관장하는 전담지부장제 도입을 공제에 요청했다.

한편 공제 각 지부장들 역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과 연계한 국토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실질적으로 각 이사장들이 보상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했다.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카드



연회비
유류 국내전용 면제
일반 국내전용 5,000원(초년도 정상 부과, 차년도 이후 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서비스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면세 및 보조금 혜택

- LPG 리터 한국석유공사 공시가 기준
- 일 4회 한도
- 부제일 이용건,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지급 거절
- 충전 회차 1시간 이하면 서비스 제공 불가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 M포인트 적립

전국 400여 개 하이카프라자 지정점에서 자동차 부품 및 용품 50%까지 할인

- 카드 최초 발급 시 동봉된 쿠폰 지참

종합건강검진 40~60% 할인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9.5%의 연체이자율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 및 약관 참고
- 카드 신청은 전국 시·도 조합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모든 가맹점에서 0.5~2%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 (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적립)
- 월 100만원 이상 이용 시 1.5배 적립
- 당월 이용금액 50만원 미만 시 적립 제외
- 신규 발급 시 발급일 포함 2회차 결제일자에 포함되는 이용건까지는 이용금액 50만원 미만 시에도 기본 적립률 제공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 요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및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적립 제외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 보유하고 있는 현대카드 포인트를 통합하여 1인당 5년간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가능
- M포인트+세이브-오토 포인트+통장포인트+가족 M포인트+5카드 오토 포인트 +BLUEmembers 포인트 통합 한도
- M포인트 사용은 구매 이전에 적립된 M포인트에 한하며, 해당 차량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불가
- BLUEmembers 포인트는 현대차 구매 시에만 통합 한도에 포함
- KIA RED MEMBERS 포인트는 통합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아차 구매 시 사용 가능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41226-141738호(2015.01.12)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의료연수특별과정 교육현장을 가다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보험연수원에서는 의료연수특별과정 교육이 진행됐다.

법인택시, 버스, 화물 등 5개 육운공제조합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각 공제조합 소속 직원 총60명이 참가하여 '후유장해등급판정'의 주제로 교육이 실시됐다.

후유장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애가 남는 것을 말하며, 공제 및 자동차보험의 주요 보상항목 중 하나이다.

특히 보험사기가 점점 더 지능화 되

고 있는 요즘의 추세와 피해자와 조합원이 입은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기본지식 및 등급 산정기준의 정확한 숙지는 보상담당 직원의 필수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정형외과, 비뇨기과, 신경계 등 각 의료과목별로 강의가 마련되었으며, 각 과목별 권위와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학병원의 현직 교수들이 강의를 맡아 교육이 진행됐다.

강의는 장애의 판정 기준 및 원칙, 유형별 장애 사례 등 후유장해등급판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생들의 눈높

이를 고려한 맞춤형 강의를 진행됐다.

특히 정신과 장애, 안과장애, 성형외과 장애 등 기존 교육과정에서 빈도가 크지 않았던 의료과목들에 대한 강의와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강의가 별도로 마련돼 후유장해판정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생들의 지식함양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주입식 강의 외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이 도입돼 참가한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후유장해등급판정의 주요사례들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시청각 교육이 강의와 동반돼 교육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강의 후에는 교육생들이 후유장해에 대한 등급산정 및 공제금을 직접 산출해 보는 사례별 실습시간도 진행됐다.

교육생들 각자 강의 내 배운 지식을 토대로 산출한 내용들에 대해 발표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한 토론 및 강사의 평가 시간이 뒤따랐다.

교육에 참가한 한 직원은 "비록 3일간의 짧은 교육이었지만 후유장해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다."라며 "이러한 교육과정이 좀 더 많이 마련돼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라는 건의의 한마디를 건네기도 했다.

2014년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교육일정도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다. 교육을 기획하고 준비한 직원들의 노고와 교육에 참가하여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던 교육 참가 직원들의 열정이 일년 내내 뜨겁게 이어졌던 한해였다.

이제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걸음 더 발전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최상의 서비스와 경쟁력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마음속으로나마 응원의 박수를 보내본다.

돈 버는 콜택시앱 리모



적립금 지원

한 콜 운행 시마다 적립금이 쌓이면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월회비 무료

월회비가 없어 부담이 없습니다.



고객센터 운영

24시간 기사님의 불편사항을 100% 해결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600-6446 가입문의 070-7600-7704
www.limotaxi.co.kr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존경하는 전국개인택시가족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택시업계는 많은 이슈들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조합원님들 마음 마음마다 불편하거나 행복했던 기억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택시의 어려움이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요금인상이 있었지만 우리 택시가족들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택시정책안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없는 방어적인 정책들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택시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뜨겁게 달궈진 택시감차 문제는,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감차의 방법과 재원마련을 놓고 정부나 지자체, 택시 단체별 이견을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 대수 줄이자는 식의 상투적인 논의보다, 차라리 불법 렌터카영업 근절을 통해 택시감차 효과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했고 올해도 집중할 것 입니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권수 이사장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청양(靑羊)의 기운을 받아 서두르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씩 꾸준히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택시업계는 지난해 「택시발전법」의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택시발전법」의 핵심 내용인 택시감차와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에서는 논의 과정에 우리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운영에 있어서도 LPG충전소 등의 복지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비정상적인 관행 등 과거 조합운영의 갖가지 적폐에 대한 개혁도 꾸준히 추진하여 균림하는 조합이 아닌 낮은 데로 임하는 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성우 이사장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개인택시운전자가족 여러분의 안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질고 온순하며 우리에게 한없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 양띠해라서 인지 올해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손님들과 정감어린 삶의 얘기 속에서 때로는 서로 위로와 격려를 때로는 용기를 나누는 건전하고 건설적인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솔선하고 질서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임을 다하는 보람찬 이 나날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조합원님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협조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불합리한 제도, 우리업계를 위협하는 장애물들이 모두 해소되어 안정된 여건에서 우리 모두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우덕 이사장



갑오년 한해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엄청난 비극과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극복했다고 자부하면서 힘들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모두 잊어버립시다.

저는 을미년 한해를 “택시기사가 웃으면 사회가 밝아진다.”라는 목표를정하여 택시의불신을 신뢰로 바꾸고,희망을 전달하는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면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조합원의 수익증대 및 복지 향상을 최우선과제로 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조합원님의 많은 협조와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조합원이 합심하여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는 생산적인 조합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민환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지역의 택시가족여러분! 을미년 한해가 밝았습니다. 양의 해에 순한 마음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택시가족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선 우리 인천의 개인택시조합에서는 택시요금을 인천시에 건의 조기에 실천하고자 합니다. 가뜰이나 어려운 택시기사들의 삶에 지난 2013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늦게 택시요금이 올라 참으로 참담한 한 해였습니다.

둘째, 현행 3부제에서 5부제를 건의 합니다. 현재 택시기사의 연령대가 50대 후반으로 각종 애경사가 한 달에 두 세 건입니다. 결국 한 달에 15~6일도 일하지 못 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셋째, 인천개인택시 조합 콜을 하려고 합니다. 약 9천명의 조합원이 인천시내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조합원들의 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합 콜 하나 없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문옥 이사장



존경하는 16만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한해는 우리 택시 업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택시총량 초과 지역에서는 감차계획 수립에 따른 감차를 해야 한다는 것과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거부에 따른 행정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택시발전법이 제정되어 향후 우리 업계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업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16만 개인택시 가족들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이루어내야 하며 LPG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감차 재원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연합회의 불미스러운 일로 16만 조합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연합회가 더욱 변화,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순락 이사장



존경하는 전국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대구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을 뒤로하고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소원했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는지요?

혹시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올해 꼭 이루시길 바라며, 다행히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와 대구조합의 임직원, 조합원은 조합원의 이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신명을 다해 올 한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15년 제7회 세계물포럼 대회가 4월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공적 포럼을 위해 대구개인택시조합 1만여 조합원들은 개인택시 현대화, 정보화, 친절로 손님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대구를 찾아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창영 이사장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16만 4천여 조합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며, 모든 일들이 소망하고 염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에도 전국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제도 개선 등 업계의 현안문제 해결을 이루면서 대외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올해에도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는 조창영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주원 이사장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친절하고 안전하게 승객을 모시며, 개인택시 위상정립에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올이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시업계는 우리의 업권을 위협하는 불법여객운송 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어려운 택시영업 환경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불법여객운송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연합회를 중심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며, 국회에 입법 발의 되어있는 개인택시 LPG 부가세 감면 개정안이 반드시 개정되어 택시감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16만 개인택시 사업자 모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돌식 이사장



조합원 여러분 올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해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승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합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올이년 새해는 택시발전법이 시행되어 우리 개인택시사업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조합에서는 택시감차보상제도 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외에도 개인택시사업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개인택시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오지지역의 행복택시은행 지원사업등과 노후된 영상기록장치를 전면 교체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적극추진하여 조합원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상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배판술 이사장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이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올 한해 더욱더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업계는 이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더욱더 견고해 지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럴 때 일수록 더욱더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개인택시상』 구현에 적극 노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우리업계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국세청 지급 근로장려금(최대210만원) 및 자녀장려금(해당자녀수×50만원)은 신청자격이 있는 많은 조합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영여건 변화는 조합원 여러분들 한분 한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되어 집니다. 금년에도 우리업계의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상익 이사장



조합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제11대 이사장에 당선되어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0대 이사장 재임 동안 큰 대과없이 중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제11대 이사장 임기 동안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11대 이사장 선거기간에 약속한 공약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완수하고 항상 조합원님들의 여론을 정중히 받아들여 조합원님과 함께 생각하고 조합원님의 위치에 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합을 운영하여 선진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여명을 밝히는 태양처럼 조합원님이 하시는 일마다 날로 번창하시고 작은 선행에도 감동하는 새로운 삶이되시길 바라며 항상 안전운행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여근하 이사장



희망찬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전국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국가적인 차원의 택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택시관련 정책지원 등 택시산업 발전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난해 택시특별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택시업계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꼽힌 택시 과잉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

나 감차보상 재원마련은 머무적거리고 있어 이를 위해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 예산 확대와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로 현실적인 감차재원이 마련되어 실거래가로 감차보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전개하고 택시업의 업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합니다.

충청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최현태 이사장



존경하는 16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갑오년도 지나 희망찬 올이년 새해 아침이 힘차게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정세가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건등 대형사고와 경기둔화 현상으로 서민 경제가 위축됨으로서 우리의 삶의 질이 팍팍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도 고비용·고연료의 운송원가 속에서 고객감소등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금년에는 사업자의 업권보호를 위한 택시감차에 대한 감차보상금의 현실화, 연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택시요금2년주기 인상 정례화등을 실행토록 하여 우리의 업권 보호와 권익을 신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사업자여러분의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해경 이사장



사랑하는 16만 전국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2015년 올이년(乙未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무엇보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감차사업이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택시 감차가 순조롭게 진행 되려면 무엇보다 감차 보상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택시감차보상 재원마련을 위하여 현재 연합회를 필두로 하여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조합원 업권보호를 위하여 한발더 노력하고 뛰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말없이 헌신하는 16만 조합원 여러분! 올해도 힘차게 분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지현 이사장



존경하는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2015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든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제약을 담은 택시발전법이 통과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소통하여 과거보다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운행하십시오.

우버 국내침투 막아야 한다

우리 연합회... 국회 상대로 입법 추진

국회 김성태·이노근·한정애 의원 “우버, 근절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우버가 어느새 택시업계를 파고들어 위협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엄연한 운수사업법 위반인데도 모바일 앱으로 기사를 호출하고 요금 결제까지 하는 우버는 젊은 세대에는 새로운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

콜택시 우버의 불법 논란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우리 연합회는 우버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서울 강서구)은 불법 “우버”가 택시

시장에 진입하여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여객운수업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 임차인이나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의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이외에도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운수업 시장의 질서를 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객법 운수사업법 개정을 발의했다.

같은당 이노근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서울 노원구 갑)도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실질적으로 택시 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버앱을 통한 알선이나 조장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는 골자로 이노근의원 등10인이 여객법을 발의 했다.

새정치 민주연합 한정애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면 그에 맞춰 자가용 또는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파견하여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자도 기존 자가용 영업자 등과 같이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여객법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우버는 불법”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우버 신고 포상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지난해 12월 22일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우버 불법영업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을 포상한다는 것에 대해 우버 측이 반발하자 우버의 위법 요소를 일일이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다.

우선 고급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일반 운전자도 운행할 수 있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시는 규정했다. 시

는 우버가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택시에 대해 자격관리제도와 검증제도, 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버는 이러한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기 어렵고 우버운전기사 자체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우버는 정부의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인 요금 변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버 이용약관은 모든 결제에 대해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우버 이용약관은 우버가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배

포할 수 있다고 적었으며, 사용자가 우버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 발생시킨 모든 손실을 배상할 것을 규정하는 등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시는 지적했다. 이는 우버가 중개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시는 우버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먼저 받으면서도 앱의 부정확성이나 악성코드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시는 이러한 우버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나눔과 참여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와 기사를 강력히 단속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통해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버코리아 측은 “한국시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우파라치(우버불법영업신고자)신고로 벌금을 내야하는 우버운전자에게 벌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앱차단을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다.

검찰, 우버 창업자 ‘불법 운송사업’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니(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

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해 8월 초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승객은 우버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테크놀로지 등을 고발했다.

칼라니 대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2009년 영업을 시작한 우버는 곳곳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아 위기에 몰리고 있다. 독일 등 각국 법원은 우버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놨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우버, 필라델피아 45개 택시회사로부터 소송당해

“택시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한국의 법정에 서게 된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니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필라델피아에서 영업 중인 45개 택시 회사는 우버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차량공유서비스는 불공정 영업이라며 우버 테크놀로지와 창업자 칼라니 등을 상대로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가 2014년 12월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5개 택시 회사는 소장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법에 따르면 택시 영업은 택시 면허를 가진 업체에 한정되지만, 우버 테크놀로지는 택시 면허 없이 영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시 1대당 면허 비용은 52만 달러에 이른다. 우버가 면허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면서 "이는 부정 이윤을 금지한 연방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버가 면허 없이 영업함에 따라 현재 총 8억8천만 달러에 이르는 택시 면허의 가치도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차량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영업한 18명의 이름도 적었다.

45개 택시 회사의 합동 소송에 대해

우버는 "탑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겠다"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가용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차량공유서비스'로 주목받는 우버는 올 하반기에 세계 곳곳에서 소송에 시달리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도, 태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서 우버의 영업을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SBS TV도 우버 현장취재 나서

우버 “택시 대란 해결”…서울시 “범죄 악용 우려”

우파라치 논란, 택시전쟁 시작됐다

서울시가 포상금제도, 이른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며 우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현행 운송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우버 코리아 측이 기사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사실 우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한국만이 아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우버 영업을 금지했고, 미국과 인도에서는 승객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가 일어난 바 있어 세계적인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우버는 일반인들도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일반인의 우버를 이용한 택시 영업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과 들쭉날쭉한 요금체계, 사고 발생 시의 보험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우버 코리아가 사고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피하고자 이용약관을 불리하게 작성했다고 주장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입수한 우버의 약관에 따르면 분쟁 발생 시 네덜란드의 법에 따른다거나, 한국어 약관보다 영어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이 눈에 띄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우버 엑스 기사 3명을 만나 우버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남은 시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소득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기사들. '우파라치' 도입에도 어김없이 차를 몰고 나온 그들은 시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기사 등록 시 범죄경력을 이미 확인했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우버 엑스의 경우 최소요금이 2천500원으로 택시보다 저렴하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게다가 주말 밤 강남 일대에서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일삼는 것을 꼬집으며 '그들이 버리고 간 승객들을 안전하게 태워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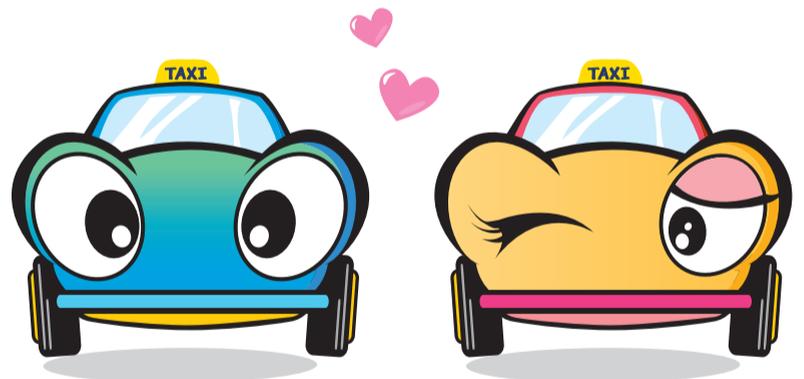
한 전문가는 우버 논란에 대해 사람들이 왜 우버를 이용하게 되는지를 봐

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버와 같이 새로운 방식의 경제활동을 무조건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하지만 기존의 택시업계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우버에 대해 강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버, 과연 공유경제와 신기술의 혁신일까? 아니면 기존의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일까? 우버를 둘러싼 논란과 진실을 짚어봤다.



※ 우버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로서 우버 창업자 우버테크놀로지의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미 세계에 확산되어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2013년 8월 초에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유사택시 운송행위다.

www.klpg.or.kr

깨끗한 내일을 위해 부르릉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청정 에너지
더 힘찬 자동차를 만드는 파워 에너지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그린 에너지
우리에게는 LPG가 있습니다

Clean Energy, Clean Tomorrow

 **대한LPG협회**

‘다양해지는 택시연료’ ...업계의 선택은?

연비 좋은 경유 VS 차값·연료값 저렴한 LPG ‘대결 구도’

경제성·환경성 문제, 대구 CNG 포기 서울은 경유택시 포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택시연료다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 전통의 택시연료인 LPG에 CNG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지난해 하이브리드 택시에 이어 올해에는 경유 택시까지 등장했다.

이에 업계 간 연료별 우수성을 내세운 경제성, 환경성 공방이 끊이지 않는 한편, 최근 LPG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택시연료다변화가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효율이 높은 경유와 차값과 연료비가 저렴한 LPG사이에서 경제성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연료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는 국토교통부와 환경적 위해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는 환경부의 입장차이도 여전하다.

◆ CNG택시, 연비·환경성 장점...인프라는 걸세

지속적인 LPG가격 상승에 택시업계는 택시연료 다변화를 요구했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의 CNG택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CNG택시가 처음 개조·보급되던 지난 2008년에는 m당 CNG 평균가격이 710원으로 당시 리터당 가격이 1020원이 넘는 LPG에 비해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가격적 우위에 있었다.

게다가 리터당 6~7km에 불과했던 LPG차보다 연비도 좋았다. 당시 LPG

업계는 도시가스업계에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택시업계 지원, 가격안정화 등 다양한 카드로 응수했다.

하지만 최근 택시업계는 CNG택시에 완전히 등을 돌린 모습이다.

CNG가 연료가격이 저렴하고 연비는 좋지만 개조비용 및 검사비용, 충전소 부족에 따른 공차운행 및 연료소모 증가, 개조에 따른 잦은 고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적인 비용지출과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CNG는 최근 m당 1100원 정도로 가격이 올랐지만 LPG는 지난 2008년과 크게 차이가 없다. 오히려 LPG는 최근 들어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CP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충전소가격이 리터당 800원대로 떨어졌다.

결국 CNG택시를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했던 대구시 택시업계는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음에도 국토부의 개조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기에 최근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강원지역 택시업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의 실패 사례를 본 강원지역 내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수요조사에 단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원도는 춘천, 원주, 동해, 홍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CNG충전소가 단 한곳도 없어 정작 택시 사업자



▲ 경기도 성남의 송현충전소 택시들이 충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에 무리하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물론 LPG와 CNG간 연료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성 승패는 뒤바뀔 수도 있지만 십수년간 완성차로 제작됐던 LPG차의 완성도와 전국 2000여곳에 달하는 LPG충전소의 인프라를 당장 CNG가 따라잡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 택시업계 최대의 논란 ‘경유택시’

올해부터 경유택시가 보급된다. 엄밀히 말해 택시연료 선택은 택시사업자의 자율이지만 올해부터는 택시모델에 경유가 추가되고 9월부터는 보조금까지 지급된다.

LPG와 경유,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연료를 두고 업계 간, 정부부처 간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또한 대립되고 있다.

경유택시 옹호론자들은 여차피 배기가스보다 타이어마모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데 경유택시의 시장진입조차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유로6로 바뀌면서 경유차의 환경성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높은 효율을 가진 경유의 장점까지 부각되면서 국무조정실 회의를 거쳐 경유택시 도입이 확정됐다.

이 같은 경유택시의 등장으로 LPG업계는 연료의 청정성을 내세우며 저항했고 환경부와 서울시 또한 경유택시의 환경적 위해성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수도권대기환경대책으로 가장 활발히 CNG버스 보급과 경유차-LPG 전환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경유

택시 도입에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음에도 올해 경유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많은 수도권 보다는 지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유택시 도입 유무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LPG와 경유에 대해 부처별로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놨다. 또 각기 다른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두고 실험했으며, 상반되는 결과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문제는 연료를 선택해야 하는 택시업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유택시에 대해 택시노조와 개인택시사업자 간 의견도 대립되고 있다. 정부도 검증하지 못하는 정책 추진에 한가지의 연료를 선택한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수년 뒤에는 경유택시 도입이 환경과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혈세낭비일지 택시사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연료 간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성공적인 국가정책이 될 것인지 명확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과거 잘 나가던 CNG택시는 결국 대구택시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세금 낭비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경유택시 등장과 함께 무리한 정책 추진이 아닌 택시연료다변화의 순기능을 살리는 한편 정책 추진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다.

택시업계 지원은 물론이고 연료선택권을 시장에 맡기는 정책에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서라도 말이다.

〈석유가스신문 이수현 기자〉

도와주세요 [2]	간담회	2015.01.26
시동꺼짐 현상 질문 드립니다. [8]	질문	2015.01.26
파주, 고양쪽 개조업체 추천부탁드립니다. [9]	질문	2015.01.26
처음 시동시 꺼짐현상에대해서 고수님들에게 조언점 여쭙고자합니다. [20]	질문	2015.01.26
고양시나 파주시 cng 수리 [4]	문의	2015.01.26
cng개조업체추천해주세요 [18]	문의	2015.01.26
수원 하이시엔지 다녀왔습니다(땀류!!! 정말로 감사합니다) [12]	답변	2015.01.26
광주 다임코 수리가능한곳 [1]	문의	2015.01.26
네번째 캠프지션서 문제 [9]	문의	2015.01.26
의정부 맑은서울 이벤트참여하려고합니다 [5]	문의	2015.01.26
의정부쪽 차탈길수있는곳좀 추천해주세요 [1]	문의	2015.01.26
bmw 06년 7시리즈 e66 132리터 작업 가능한 업체 추천해주세요~ [8]	문의	2015.01.26
뉴아트2.3개조할려구요 [1]	문의	2015.01.26
시동꺼짐이요...도와주세요 [7]	문의	2015.01.26
(헬~프) 오피3.3 BRC 킷 첫시동시 울럭후 시동꺼짐 해결법? [5]	문의	2015.01.26

▲ 인터넷 카페에서는 CNG차 개조불량에 관련된 다양한 글이 게시돼 있다.



조합탐방

울산조합을 가다



복지충전소 교체 조합원 접근성 높이고 수익성 개선

“조합원의 단결과 화합은 조합발전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합은 이사장 선거 후유증에 매몰되어 조합원의 반목과 대립으로 조합발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조합이 직영하는 임대충전소 2개소를 교체하여 불리한 임대 조건을 개선했고 또한 조합이 소유하는 직영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차보상이 담보 상태로 감차효과를 얻기 위해 울산시청의 지원을 받아 15대를 장애인 콜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대 이사장 임기의 마지막 해인 올해는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목표로 정해 놓고 조합원의 화합을 이뤄내겠습니다.”

김우덕 이사장은 이렇게 아쉬움을 털어놓는다.

◇ 충전소 경영 환경개선

3581대의 울산 조합택시 중 울산시로부터 12억원을 지원받아 1100대를 태화강 콜택시로 편입시켜 조합원 운송여건을 개선한 울산조합은 조합이 임대하여 직영해온 2개소의 복지 충전소를 교체하여 운영 조건을 개선했다.

울산조합은 지난 2006년 1월에 개소한 남구 옥동에 소재한 제1복지충전소를 2011년 8월에 조합원의 접근성이 좋은 남구 야음동 소재 충전소로 교체했다. 조합원의 접근성이 향상된 제1복지충전소는 조합원의 이용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

2007년 7월에 보증금 3억원에 월임대료 1500만원에 임대한 북구 진창동 제2복지충전소가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가 올라 이천만원까지 인상되어 복지충전소 수익성이 떨어져 2014년 6월, 임대계약을 해약하고 태화강 충전소로 교체했다.

“2014년 8월 새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 태화강 충전소는 계약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보증금없이 월 500만원으로 월 임대료를 크게 낮춰 1년에 1억7천4백만원씩

대료 지출이 절감됐다”고 임종빈 소장은 말한다.

또한 울산조합은 0당 50원씩 주된 리베이트를 60원으로 인상하고 이익으로 쌓이는 잉여금을 별도로 조합원에 돌려주고 있다.

“조합에서 충전소를 직영하는 경제성이 조합원 차량이 1000대를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 차량이 3581대여서 아직도 1개소의 직영 충전소를 늘려 수익성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할 때 복지 충전소를 1개소 더 늘리려고 합니다. 3개 충전소 모두 임대충전소로 할 수는 없고 1개소는 조합이 소유하는 ‘메인 충전소’로 만들면 경영효과가 높아져 조합원 복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올해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김우덕 이사장은 조합원은 자신이 경영하는 택시운송수입을 올려야하고 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수익성을 개발,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 장애인 택시 개발

“근래에 발생하고 있는 택시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택시의 공급 과잉입니다. 민선시대의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서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요 공급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선심행정 차원에서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경쟁적으로 해왔지요. 이제와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총량제 실시하고 감차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때문에 담보 상태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동차가 없는 울산이지만 경영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KTX 울산역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택시가 50여대나 됩니다. 2시간 넘게 기다려야 손님을 싣고 시내로 돌아올 정도이지요.”

울산조합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감차의 효과를 얻기 위한 골육지책이라고 김우덕 이사장은

말한다.

울산조합은 일반 승객은 신지 않고 장애인만 전용으로 신는 장애인 콜택시 15대를 운행한다.

2012년부터 울산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협회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을 상대로 장애인 콜택시 희망자를 모집, 장애인 전용차 팀을 별도로 편성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운행하는 빡빡한 일정이지만 이를 운영하고 하루 쉬는 3부제 운영으로 월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보장되어 지원자가 대기 상태다.

1년 계약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울산시청이 매달 240만원 지원받고 별도로 장애인으로부터도 5Km 기본요금을 1800원씩 받는다.

정용근 장애인 택시 팀장은 “장애인 전용택시가 모자라 장애인 승객이 승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콜을 받고도 신속하게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늘 미안한 생각이다”고 말하고 “시급히 증차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우덕 이사장도 “지난해는 매달 받는 지원금 230만원을 올해부터 240만원으로 인상시키는데 조합 역량을 집중했는데 올해는 10여대 정도 증차하기 위해 울산시청과 빈번히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한마음 체육대회

“조합원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는 조합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단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도 체육대회 예산이 없어 축제가 되어야 할 체육대회가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 왔습니다.”

김 이사장은 제 6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울산시장을 만나 조합원들의 체육대회 중요성을 설명하고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매년 2900만원씩 지원 약

속을 받아냈다.

울산조합은 조합 체육대회를 한마음 체육대회로 명명하고 2012년부터 3년동안 조합원 가족까지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 흑자공제

전체 조합원 3624명 중 3347명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울산지부는 누적 경영수지가 14억5천만원으로 몇년째 흑자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해 대인 사고율 25%에다 대물 사고율 63.9%로 5개 광역시 중 사고율이 제일 높은 울산지부는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울산지부는 경영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담금 인상을 억제하여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분담금 인상은 3%밖에 하지 않았다.

울산지부가 분담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누적 흑자의 기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김우덕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임원과 공제 직원이 사고 예방 거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조합원들에게는 사고의 경각심을 깨우치고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핸드폰 문자로 수시로 보내고 있는 노력 때문이다.

또한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만족을 위해 울산 전 지역에 출동요원을 배치,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조합원과 피해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고 접수후에는 조합원과 피해자에게 수시로 사고 처리 진행과정을 설명, 초기에 사고 처리를 종결하는 보상처리 서비스 수준의 차별화를 실현하고 있다.

〈글·사진 김관술〉

▶ 김우덕 이사장 역점사업

충전소 경영환경 개선, 임대충전소를 교체하고 조합 소유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 조합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복지충전소



▲ 제1복지충전소



▲ 공기청정기



▲ 조합원 휴게실



▲ 자동세차기

울산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전무이사 김주수



이사 형용운



이사 이강덕



이사 이병국



이사 이재호



이사 권오만



이사 고석준



이사 정한익



이사 전순갑



이사 정근태



이사 조상원



감사 윤영학



감사 장진환

조합탐방 " 강원조합을 가다

강원도 일원 오지마을에 희망택시 운행 도·농간 운송수입 양극화 해소 추진



강원도 평창군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조합은 어느때보다 활기가 넘치고 있다.

올해로서 제10대 이사장 임기 3년차를 맞고 있는 김주원 이사장은 강원조합 경영목표를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조합'으로 정하고 투명경영을 추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군 지부와 도 조합으로 이원화 돼있는 도조합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한 지부 육성에 힘쓰는 한편 농촌·어촌지역이 많은 강원도에 대한 특성을 감안, 농촌·어촌 오지지역에도 택시 공급을 지방 정부의 복지 차원에서 공급 새로운 택시 수입원을 개척하기 위해 희망택시 운행제도를 이끌어 내 택시 경영난을 완화시켜 택시 경영 활성화에 불을 지폈다.

◇ 희망택시 확대추진

2013년 1월 1일 제10대 이사장에 취임한 김주원 이사장은 2014년 2월 26일 버스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벽지 오지마을 주민에게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택시 교통을 제공하는 가치 '희망택시'를 강원도청에 건의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원을 상대로 치열하게 교섭을 벌였다.

최문순 강원도 지사는 김 이사장의 건의를 흔쾌히 받아들여 2014년 3월 13일 강원도청에서 개인택시·법인택시 이사장과 함께 대중교통 취약마을 주민 교통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2014년 하반기부터 도내 5개 시·군을 선정, 희망택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부터는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춘천시 5개마을 ▲횡성군 3개마을 ▲영월군 1개마을 ▲평창군 1개마을 ▲양구군 4개마을 등 모두 14개 마을에 1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희망택시 운영을 시작했다.

희망택시는 마을별 집결장소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며 주민들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금액을 지불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택시 업체에 운행 손실을 강원도가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강원도는 희망택시 시범 사업 선정지역 주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올해는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희망택시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수입이 도시와 농촌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희망택시 운영으로 농촌지역 택시 경영에 큰 보탬이 돼 도·농간 격차해소에도 한 몫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국 최초로 희망택시 사업을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추진한 김주원 이사장은 이제 희망택시 사업은 농촌지역 택시를 살리는 묘책이라고 설명하고 "강원도의 선견지명인 희망택시 사업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조합운영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조합운영'을 추진하는 강원조합은 중단된 노인의 날을 부활시키고 노인장 조합원을 발굴 표창하고 격려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실시해오던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2007년 조합사정을 이유로 중단된 뒤였다.

이사장 출마 선거 공약으로 노인의 날 부활을 내건 김주원 이사장은 제 10대 이사장에 당선 취임한 후 2013년 10월 2일을 강원조합 노인의 날로 정하고 친절운전을 실천하고 조합 발전에 헌신한 만 70세 이상 30년 장기근속한 36명을 선정, 기념식을 갖고 감사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또한 18개 시·군 지부장이 추천한 모범 조합원을 선발, 해외 교통문화 탐방을 실시해 조합원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강원조합은 2007년부터 74년 조합 발전에 헌신한 모범 조합원 36명씩을 해외여행을 보내어 선진교통문화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달콤한 해외여행을 통해 휴식을 즐기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은 조합의 주인임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고 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좌측 앞줄 6번째)와 함께 협약식을 갖는 김주원 이사장(좌측 7번째)

“1인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조합이 조합 경영의 초점을 조합원에게 맞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합 이사장을 비롯, 시·군 지부장은 그저 살갑게 조합원을 챙기다 보면 조합경영은 절로 이뤄집니다.” 김주원 이사장의 조합 경영관이다.

4608명의 조합원이 18개 시·군 지부에 분산돼 택시를 경영하고 있는 강원조합은 올해 지부 중심의 조합원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 다짐 결의 대회 및 강원도 개인택시 가족 친선 체육대회’를 갖기 위해 강원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놓고 있다.

4608명의 조합원이 춘천시를 비롯, 18개 시·군 지부에 분산되어 경영을 하는 강원조합은 올해 지부 중심의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총 사업비 6천3백42만원 중 3천3백42만원은 자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강원도가 지원하여 18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지역축제로 만들어 조합원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을 다짐하는 한마당 축제를 추진한다.

◇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

도조합과 시·군 지부로 분리되어 조합 경영이 이원화되어 있는 강원조합은 시 단위 지부가 조합원의 운송수입개선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 사업의 꽃으로 불리는 직영 충전소를 춘천, 강릉, 속초시 지부가 경영하고 있다.

브랜드택시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시 등 7개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춘천시지부가 통학택시, 장애인 택시를 영월군 지부는 통학택시 원주시 지부는 장애인 택시를 개척, 운송수입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안전운전으로 흑자공제 도전

강원도 면적은 서울시 면적 27배나 된다. 산악지역이 많아 도로마다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 많아 운전이 쉽지 않은 도로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많아 마른도로에 비해 정지거리가 2배나 된다.

강원 공제 지부는 이런 운전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은 양보운전에서 시작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반칙운전 안하기 ▲교통신호 준수하기 ▲빙판길 안전운전 하기 ▲안전벨트 매고 운전하기 등 꾸준히 홍보한다.

또한 김주원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중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블록거울’을 구매해 전 조합원 차량에 부착해줬다.

〈글·사진 김관술〉

| 김주원 이사장 역점사업

- 도내 오지마을 전역에 희망택시 운행,
- 도·농간 양극화 해소
- 조합원이 중심되는 조합 운영



대의원 최국희



대의원 최대현



대의원 최정수



대의원 최종복



대의원 하정수



대의원 함금식

강원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대의원 공양진



대의원 권혁일



대의원 김동백



대의원 김동욱



대의원 김병열



대의원 김석철



대의원 김용준



대의원 김종완



대의원 김중욱



대의원 김중철



대의원 나경석



대의원 박상원



대의원 박상임



대의원 박세환



대의원 박웅기



대의원 박한규



대의원 박호성



대의원 신도선



대의원 안병모



대의원 안중극



대의원 원재дук



대의원 유상주



대의원 유상호



대의원 이남규



대의원 이성기



대의원 이정호



대의원 전두표



대의원 정달교



대의원 정창영



대의원 지창은

2014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정에 적극 대응

□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를 산정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감차보상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78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 산정기준 및 절차, 감차계획 수립·변경 절차, 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및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14. 02. 21)를 거쳐 공포(‘14. 07. 28)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 감차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및 내용
- 감차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 등
-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 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및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 택시운송사업자 복지기금의 관리·운용 및 감독 등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 [별표2]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안) 및 공포 주요내용 비교

- 연합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입법예고안과 비교하여 처분규정을 대폭완화하여 공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승차거부 할 경우 위반횟수를 2년 이내로 한정하고,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기타 행위(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를 한 경우 처분규정도 대폭 완화시켰으며,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도 대폭완화시켰으며, 횟수 제한도 승차거부(2년), 기타행위는 1년 이내로 완화하여 산정하도록 대폭 완화했다.

입법예고(안)	공 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 [별표2]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승차거부 할 경우 : 운행정지 1회 90일 2회 180일 3회 면허취소(시기와 무관히 행위 횟수 산정) - 기타(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인 경우 : 운행정지 1회 90일 2회 180일 3회 이상 면허취소(시기와 무관히 행위 횟수 산정) ※ 모든 대리운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 [별표2]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승차거부 할 경우 : 운행정지 1회 90일 2회 180일 3회 면허취소(2년내 위반 행위 횟수 산정) - 기타(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인 경우 : 운행정지 1회 60일 2회 90일 3회 이상 180일(1년 내 위반행위 횟수 산정) ※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질병으로 대리운전 한 경우 제외

입법예고(안)	공 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이상 100만원 - 승차거부 : 시기와 무관히 행위 횟수 산정 - 기타(부당요금/합승/영수증 미발급) : 시기와 무관히 행위 횟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1회 위반 20만원, 2회 위반 40만원, 3회 위반 이상 60만원 - 승차거부 : 2년 내 위반행위 횟수 산정 - 기타(부당요금/합승/영수증 미발급) : 1년 내 위반행위 횟수 산정

□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감차시범사업을 실시하며,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78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5526호, 2014. 7. 28. 공포, 2015. 1. 2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관리하는 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14. 02. 21)를 거쳐 공포(‘14. 07. 29)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 규정
- 재정지원 가능 사업
- 택시 운행정보 범위 및 자료의 공동 이용
- 운전자격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강화(별표)

□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 및 공포 주요내용 비교

- 연합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입법예고안과 비교하여 처분규정을 대폭완화하여 공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처분 중 승차거부 처분 대폭완화, ▶ 처분 회수 기준도 시기와 무관히 행위를 횟수를 산정하건 것을 승차거부(최근 2년), 기타 행위(1년)으로 대폭 완화 하는 등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입법예고(안)	공 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별표)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차 180일, 2차 자격취소(시기와 무관히 행위 횟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별표)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승차거부 : 1차 20일, 2차 자격취소(최근 2년간) - 기타(부당요금/합승/영수증 미발급) : 1차 10일, 2차 20일(최근 1년간)

□ 연합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연합회 건의서(‘14. 04. 02)를 제출 하였으며, 그 주요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건의하였던 결과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문제점	건의
□ 택시 실거래가격 고시제도 도입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및 택시운송사업비자별로 구분하여 감차계획 수립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양도·양수 시 거래되는 현실 가격을 시·도의 공보에 고시	□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 수준을 정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별, 업종별 실거래가격 고시 의무화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인원 10인 이내로 명시할 경우 -사업구역별, 시·도별 자치단체의 추천인원 증가로 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 우려 -국회와 정부의 합의사항이며, 정부발표(13.12.31) 내용으로 신뢰성 문제	□ 택시 감차위원회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명시
□ 택시감차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감차보상지역의 현실가격 보상	□ 양도·양수 시 거래되는 현실가격을 반영하는 감차보상 건의
□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 등 과태료 처분이 상향조정 될 경우 -횡수에 따른 처분 기한 없이 적용할 경우 과도한 처분으로 사업유지 불가능 -일반택시와 비교하여 개인택시는 사업자 및 운전자 동시 처분으로 과중한 처분	□ 위반행위의 횡수에 따른 행정 처분 기준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용 -과태료 처분완화(1회 30만원, 2회 40만원, 3회 50만원)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위반사항을 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처분할 경우 -행위자 처벌 법률 원칙에 위배 -대리운전자의 지도·감독 불가능으로 사업 처분 증가 예상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위반사항을 사업자에게 전가하여 처분 규정 신설 반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건의내용

문제점	건의
□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 등 자격처분을 상향조정 될 경우 -개인택시는 과태료 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을 동시에 받게 됨으로 일반택시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처분 -버스 등 다른 여객운송사업과 형평성 위배	□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영수증미발급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처리정보가 도입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처리정보 부당 사용 금지 규정 신설

□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업계는 업계 대표자회의, 국회,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간담회, 국토부와 업계 실무자회의, 언론홍보 등을 통하여 우리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정	추진 사항
'14. 03. 06	• 택시업계 실무자와 국토교통부 택시정책 간담회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처분기준안 - 택시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4개 단체 의견수렴
03. 07	• 개인·법인택시연합회장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간담회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처분기준 관련 논의 • 전국 개인·법인택시연합회 회장단 연석회의 개최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관련 대책 등 논의

03. 17	• 중앙일보 및 동아일보 광고게재 ▶ 택시산업을 죽이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철회하라!!! • 문화일보 광고게재 ▶ 택시산업을 죽이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철회하라!!!
03.20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시·도조함에 요청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에게 적극 건의 및 설명 • 택시업계 실무자와 국토교통부 택시정책 간담회 -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처분기준안 - 택시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등 설명
03.24	• 교통신문 광고게재 ▶ 택시산업을 죽이는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철회하라!!!

2 개인택시 연료부가가치세 면제 적극 추진

□ 연합회는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부가가치세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감차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이재의원과 설훈의원에게 건의하였던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이재 의원 대표발의(14인) (2014. 02. 18)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0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감면. 다만 이경우 이법,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 50조에 따른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설훈 의원 대표발의(16인) (2014. 04. 03)	□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면제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분의 50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업계는 업계 대표자회의, 국회, 새누리당, 기재부 등을 통하여 우리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속심사 중이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정	추진 사항
'14.01.14/16 02.03/04 02.10/12	•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입법발의) 협조 - 새누리당 이이재의원실 방문
02.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협조 요청 - 기획재정위원회 방문
02. 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협조 요청 - 기획재정위원회(14인)에게 건의서 제출
02. 2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협조 요청 -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의원 등 12인에게 건의서 제출
03. 1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새누리당, 민주당 등 대표자 면담 신청 - 당대표·정책위의장·원내대표실 방문

□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심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법률안은 시·도조합 이사장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조세소위원회 의원들이 소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11. 25일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인택시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하여 택시 감차재원으로 활용(이이재, 설훈의원안)하는 법률안은 계류됨.

3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제완화 적극대응

□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강조한 대통령의 담화문(‘14. 02. 25) 발표와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동안 렌터카 업계에서 건의한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이 3월 27일(목)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추가검토 과제로 포함되어 있어 택시업계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택시 노·사 4단체는 성명서, 건의서, 신문광고 등을 청와대 등 정부부처에 건의 하였으며, 그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정	추진 사항
'14.0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 허용 반대!!!” 성명서와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허용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03.27 (보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제1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14년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관련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계획」 중 - “렌터카 운전자 알선(건의 : 이승철 전경련회장)” 건의과제는 추가검토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택시감차정책의 가시적성과와 택시시장 안정화 등을 보아가며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
08.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노·사 4단체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건의 - 국토교통위원회(31인)에게 반대 건의서 제출
0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8.29)에 대한 반대의견제출
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실(규제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국토교통부
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및 문화일보 광고게재 ▶“우버·렌터카 불법 택시영업”당장 퇴출해야 합니다!!!!

□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노사 4단체는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운전자 알선 금지 규정 현행유지를 건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 공포(‘14. 10. 14)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내용

□ 현재 외국인·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斡旋)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과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개정

4 택시운송사업 관련 국토교통부 훈령 공포

□ 국토교통부는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령(‘14. 10. 24, 시행 2015. 7. 1)을 공포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차량 종류변경 기준 완화 및 관련 규정의 폐지
 - 택시서비스의 다양화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창출을 위해 관할관청의 인가사항이었던 대형택시 및 고급택시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운행인가), 의무사항이었던 차종 표시, 무선호출통신망 구성, 운전자 복장, 운전자 교육 등 관련 규정을 삭제
- 모범택시 양도 시 향후 모범택시 운행인가 제한 폐지
 -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받더라도 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하고 추후 택시 양수 시 모범택시 운행인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운행인가 제한 폐지
- 모범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 삭제
 -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결격사유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 삭제
- 모범택시 운전자의 복장 의무착용 규정 완화
 - 관할관청이 다른 택시운전자와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모범택시 운전자 의무교육 이수 완화
 - 모범택시 인가 후 모범택시 의무교육을 승무 전이 아닌 관할관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모범택시 사업자의 행정처분 가산규정 삭제
 - 모범택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시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 폐지

□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개정령(‘14. 10. 23, 시행 2015. 7. 1)을 공포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택시 외부에 호출번호 표시의무 규정 삭제
 - 호출설비를 갖춰야 하는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가 외부에 호출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 삭제

□ 여객자동차 운송 운임·요금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령(‘14. 11. 03)을 공포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
 -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모범택시 및 고급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금 수준에 적절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적극 대응

□ 연합회는 법인택시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지방세법 중 자동차를 3년간에 걸쳐 100% 인상안에 대하여 절대 수용 할 수 없음을 국회, 안전행정부(‘14. 10. 06), 국토교통부(‘14. 09. 22)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법률안은 제32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11. 25)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12. 3, 12. 8)에 의사일정에 포함되었으나 논의하지 못하고 계속심사 중에 있고, 조만간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재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황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 주요내용 : 鬮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지방세 정액세율을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안 입법예고(‘14. 09. 15)

구 분	현 행	조 정
1,000cc이하	18원	36원
1,600cc이하	18원	36원
2,500cc이하	19원	38원
2,500cc초과	24원	48원

문제점

□ 택시는 대부분 1997cc로 연간 약 97억원(37,943원×255,047대) 추가가 부담

구분	현행	조정
2,500cc이하	37,943원 (1997cc×원/cc)	75,886원 (1997cc×원/cc)

□ 택시산업은 수요 감소, 공급과다 및 고유가 등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지원 정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세율 인상을 통해 국가 및 지방제정 확보 도모 <최근 10년간 추이 택시 경영여건 추이>

구분	2001년	2010년	증감
택시수요(억명)	47	37	△21%
택시대수(만대)	22	25	↑ 14%
LPG가격(원/L)	421	974	↑ 131%

건의내용

□ 현행 자동차세율 유지

개(제) 정 안		연합회 건의안	
* 개정(안)		* 현행유지	
구분	조정	구분	현행
1,000cc 이하	36원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36원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3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48원	2,500cc 초과	24원

□ 연합회를 비롯한 교통업계 9단체는 공동으로 2회에 걸쳐 성명서를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언론 등에 보도자료를 제출 했다.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노근의원 등 10인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제출(14. 10. 13)되었으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스마트폰에 저장된 앱(application, 응용프로그램)으로 자동차 배차를 신청하면 기사와 자동차가 곧 도착해서 승객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우버앱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음. 우버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카풀(car pool)이나 차량공유 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형태임.

- 이러한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실질적으로 택시 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어서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우버앱 서비스 운영자는 자신들이 단지 운송행위의 알선행위를 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 또한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반형화물자동차 등으로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 단속에 그쳐 근절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용승객의 진술확보가 어려워 단속 및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버앱을 통한 알선이나 조장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제출(14. 10. 27)되었으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이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면 그에 맞추어 자가용 또는 사업용자동차(렌터카)를 파견하여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소유자, 자동차 임차인,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의한 유상운송행위 금지 및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고,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유상운송 알선업체의 불법영업 알선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생김.

- 이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자도 기존 자가용 영업자 등과 같이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김성태의원 등 11인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제출(14. 10. 28)되었으며,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4년 현재 국내 택시는 총 25만 5천여 대이며, 이 중 약 5만여 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와 같은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불법 '우버'가 택시시장에 진입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선해 주고 있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여객운수업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음.

-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이나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의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이외에도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운수업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7 서울시 「한정면허」 공급 관련 적극대응

□ 연합회와 법인택시연합회는 공동명의로 서울시의 「한정면허」 공급과 관련하여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결과 서울시에서는 잠정적으로 「한정면허」 공급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일 정	추진 사항
'14.11.17	• 서울시의 「한정면허」 신규발급 요청 전면 백지화 및 철회 - 국토교통부 신고통개발과에 건의
11.26	• 서울시의 「한정면허」 공급관련 탄원서 제출 - 국토교통부 신고통개발과에 건의
11.26	• 택시 「한정면허」 공급 관련 서울시 방침 촉구 - 서울시에 건의
11.28 12.01	• 조선일보, 중앙일보, 교통신문에 광고게재 ▶ 무분별한 택시 신규면허 공급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데스크칼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 문제점 많아...조속히 개선되어야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의거 장착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이하 DGT)는 개인택시의 경우 '15년 1월 현재 100%장착 완료된 것으로 파악된다.

DGT의 주요기능은 순간속도, 운행거리, 운행속도, 운행시간, 브레이크감지센서 등을 전자식 기억장치에 자동으로 저장하고 운행기록분석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을 통하여 교통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DGT 장착이 완료된 1년여가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자료 출력 및 제출의 문제점이다. 이문제는 DGT 장착전 교통안전법 제정 당시부터 당 연합회가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국토교통부와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자료제출에 따

른 어려움과 한계를 수십차례 건의한 바 있었으나 받아들여 지지않았다.

불행히도 예상이 현실화 되어 쓸쓸하기 이틀데 없다. 주지하다시피 개인택시업계는 50대 연령 이상이 88%를 상회하여 전산입력 등 PC운용에 서툴다.

또한 제조업체마다 매뉴얼이 상이하여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자녀에게 부탁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일부는 미터기 업체에서 최소 3만원에서 7만원을 지불하고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장착 기간 당시 고장난 하자있는 제품을 장착하여 원천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경우이다. 교통안전공단 '표준운행기록장치 시험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제조업체 40여개가 난립하고 있다. 제조업체의 도산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A/S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타업체에 A/S를 이관하여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공급보다는 수요가 적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제조사의 도산은 더 증가될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 (교통안전복지과-2738(2014.

10. 8.)'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분석 업무 이행 철저 지시' 라는 제목으로 14. 9. 1.부터 9. 30.까지 자료를 '14. 10. 24.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미제출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관할 지자체에 부과하도록 요청 한다는 것과 함께.

이 공문을 접수한 관련 교통단체 및 시·도조합은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다. 위에 열거한 사실을 국토부에서도 익히 인지하고 있을 터인데 전격적으로 시행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행인지 교통안전공단은 '14. 10. 22.공문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항목을 삭제하고 '14. 12. 30.까지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14. 12. 1.에도 '15. 3. 31.까지 자료제출을 연장한다는 공문을 시달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자료미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시·도조합 및 시·군지부에 시달하여 조합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자료제출 기한을 수차례 연장 했다는 것은 자료제출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관계 당국도 인정 한다는 것이다. 이 바탕위에서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16개 시·도조합에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조합에서 자료 출력과

제출이 어려워니 자동차 정기검사 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수집하거나 그 대상도 사고 다발자 및 중대한 교통사고자 등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워서 체험한 사실이기에 관계당국과 교통단체 실무자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 교통사고 예방 본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 정신적 부담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인택시 업계는 교통사고 줄이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피해자도 물질,정신적,신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가?

교통사고는 비단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큰 사회문제로 비화된다는 것을 업계뿐만이 아니고 조합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

하루빨리 자료제출의 방법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교통사고 줄이기 목적에 기여하기 바라며, 우리 업계도 자료제출의 방법 등이 개선되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홍보·지도차장
김도길



콜택시업 리모택시, 단골택시를 성공적으로 인수

2월 서비스 출시 목표로 카운트다운 돌입

(주)리모택시코리아(대표 양성우)가 (주)헤브리아아이디어(대표 정승현)를 인수합병한다. 헤브리아아이디어의 콜택시업 단골택시 합병일자는 오는 1월 21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를 위해 양사는 각각 1월 5일 이사회를 열어 흡수합병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합병 수순에 돌입했다.

리모택시는 현재 베타테스트 중인 콜택시업 리모의 기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모바일 전문 기술인력들이 설립한 (주)헤브리아아이디어를 인수합병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

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리모택시의 영업력 및 오픈레이션 능력이 단골택시의 전문 기술력과 만났으로써 고객에게 더 나은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수를 결정했음을 밝혔다.

(주)리모택시 코리아는 작년 7월에 설립된 신생법인이지만 콜택시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이지택시'의 성공주역들이 창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기본과 배경이 매우 탄탄한 회사다.

특히 기존 콜택시업과 차별화된 서

비스(기사친절교육, 지정 호출 등)를 제공함으로써 베타테스트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지역에서는 기사 및 승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인수 배경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양성우 대표는 "최근 들어 벤처기업이 수년간 일구어 놓은 콜택시업 시장에 대기업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들어오고 있다.

우수 벤처 기업 간 연대를 통해 우리가 만든 터전을 지켜낼 것이다. 또한 우버처럼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기사 승객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 낼 것이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 및 우버 논란 등으로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만큼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각 중인 '리모택시'가 이번 인수 건을 통해 더욱 강력한 대항마로 자리잡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리모택시'는 2월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천안, 충주, 여수, 전주, 부산(정관 신도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피로인 가시오가피, 감기 잦으면 로즈힙(rosehip) 차 드세요

따뜻한 치유 '티 세라피'

건강에 도움 주는 허브 400여 종...

3개월 꾸준히 마시면 효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때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차(茶) 생각이 간절하다. 차는 핏공 언 몸을 녹여 줄 뿐 아니라 음식으로는 먹기 힘든 건강 성분을 섭취하게 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심신이 지치기 쉬운 이때, 건강 차를 마셔보면 어떨까.

◆ 질병 예방·완화 효과 손쉽게 볼 수 있어

건강 차를 끓이는 데 들어가는 식물을 허브(약초)라고 한다. 허브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은데, 면역력을 높이는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허브의 성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건강 증진에 활용하는 사람을 허벌리스트(herbalist)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허벌리스트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이 국내에도 늘고 있다. 허브를 이용해 여러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것을 '티 세라피(tea therapy)'라고 한다. 차(tea)와 세라피(therapy)가 합쳐진 용어다.

'티 세라피'는 식물 영양소를 이용해 몸의 치유력을 높이는 파이토 세라피(phyto therapy)의 한 분야다. 파이토 세라피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보완대체의학의 하나로 인정을 받았다. 질병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5내과 정승기 교수는 "약효가 있는 여러 식물을 물에 우려서 꾸준히 마시면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옥 국제 허벌리스트는 "차를 마시면 식물을 직접 섭취할 때보다 건강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먹기에 부담스럽거나 조리 과정이 까다로운 식물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피로 해소엔 감초, 감기 예방엔 로즈힙

티 세라피는 허브의 약효(藥效)를 제대로 알아야 효과가 크다. 유선옥 국제 허벌리스트는 "청정 지역인 뉴질랜드에서는 의사·식물학자 등으로 구성된 '녹색의학협회'가 식물의 유효 성분·인체에 끼치는 영향 등을 밝혀낸다"며 "이 협회에서 건강에 확실히 좋다고 밝혀낸 식물만 400종류가 넘는다"고 말했다. 연말에 마시면 특히 좋은 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잡은 술자리로 숙취를 겪는다면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덴더라이언(민들레의 한 종류) 차가 좋다. 덴더라이언은 커피와 비슷한 향과 맛을 내기 때문에 커피 대신 마시기 좋은 차로도 유명하다. 피로감이 심하다면 감초(리퀴리스) 차나 가시오가피(시베리안진생) 차를 마시면 된다. 감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가시오가피는 해독작용 및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라면 비타민C가 풍부한 로즈힙 차가 좋다. 캐모마일, 페퍼민트, 진피(텐저린), 생강(진저)도 감기 예방에 좋은 차다. 피부 노화가 걱정된다면 히비스커스 차를 마시면 된다. 히비스커스에는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어서 우울감을 잘 느낀다. 이때는 세인트존스워트 차가 도움이 된다. 신경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히페리시'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울감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면 라벤더

연말에 마시면 좋은 건강 차	
	덴더라이언 간 기능 개선(숙취 해소)
	리퀴리스 스트레스 감소, 해독 작용, 근육 피로 해소
	로즈힙 감기 예방, 불면증 개선, 복통 예방
	히비스커스 활성산소 발생 억제, 피부 노화 방지
	라벤더 신경 조직 강화, 심신 안정, 우울감 극복

차가 좋다.

◆ 하루 세 번, 조금씩 나눠 마셔야

차는 하루에 머그잔으로 한 잔 정도 마시면 적당하다. 차움 레트로와 김은영 매니저(티 세라피스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차를 마시면 특정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다"며 "아침·점심·저녁으로 조금씩 나눠마시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 종류의 차를 3개월 정도 꾸준히 마시면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임신부는 세이지·로즈마리 같이 여성호르몬 분비에 관여하는 차는 피하는 게 좋다. 고혈압 환자는 로즈마리 차를,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은행잎 차를 안 마시는 게 좋다.

〈기사출처 : 조선일보〉

 NEW THINKING.
HYUNDAI NEW POSSIBILITIES.

장거리, 장시간 주행이 많은 TAXI일 수록 견고한 BODY는 필수입니다
신형 쏘나타 TAXI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실시한 충돌테스트에서
쏘나타는 **최우수 등급 TSP+**를 받았습니다
신형 쏘나타 택시, 안전성으로 또 한번 앞서갑니다



본질로부터
SONATA

최상의 안전성을 위해 | 초고장력강, 핫스탬핑
부품확대로 강해진 BODY



• 7 에어백시스템 • 충격저감시트(앞좌석) • 사시통합제어시스템(VSM)
• 시트벨트 안전장치 •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편안한 드라이빙을 위해 | 운전자의 움직임에 따른
인간공학적인 설계



• 조작성이 우수한 스티어링 휠 • 쉽고 감성적인 즐거움을 주도록 설계된 인체공학적인 실내
• 열선/통풍기능과 4Way 럼버서포트(운전석 적용) • 7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안정적 퍼포먼스를 위해 | 동급 최고수준의 R&D성능을
통한 균형잡힌 주행감성



• 후륜 듀얼로어암 멀티링크 타입 서스펜션 / 전륜 맥퍼슨 스트럿 타입 서스펜션
•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 언더커버 • 누우 2.0LPI엔진